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아서 31:7-9	제2독서	히브리서 5:1-6	복음	마르코 10:46-52
--------	------	--------------	------	------------	----	--------------

◎말씀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 대한 부르짖음 >

오늘날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에 막혀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하느님은 없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인간의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에서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장애물에 부딪쳐서 하느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고 신앙에서 등을 돌리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찾고 따르는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고, 따르게 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입니다. 그런 그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구해주실 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결과 그는 눈을 뜨고 제대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오늘 복음의 바르티매오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끝까지 잡고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부족함이 많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의 부름과 자비,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인성녀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저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갖 장애물들로 인해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청하고 찾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분명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가까이 부르실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일 자	전 령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30일(화)	연중 제30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820.00 \$ 991.00
10월31일(수)	연중 제30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88.00 \$ 68.00
11월1일(목)	모든 성인 대축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2차 헌금	\$ 0.00 \$ 416.00
11월2일(금)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주일학교	\$ 0.00 \$ 2,858.00
11월3일(토)	연중 제30주간 토요일	오전10시30분 (묘지미사)	합 계	\$ 7,241.00
11월4일(일)	연중 제3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41성인:189명

교무금 봉헌자	정진욱(11-1월)장영수. 조영진(9-12월)임창순(10-11월)이명숙(7-10월)고원석(7-9월)이대원(7-8월)홍명숙(5-8월)한승운(6-7월)장호길(4-5월)이재성(9월)김규철. 송민자. 김에릭. 성영진, 박병수. 전기례. 이원건. 안기창(10월)황호민(11월)
------------	---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인호(印號)

견진성사 중에 주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견진 받을 이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 축성 성유를 바르며 “(아무개)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도장, 인장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인호’는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을 의미합니다. 인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과,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럼 언제 인호가 새겨질까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때에 영적 ‘인장’ 곧 인호가 새겨집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기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는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그 수품자에게 지울 수 없는 인호를 새깁니다. 누군가의 자녀라면 ‘이따금’ 또는 ‘일부만’ 이 아니라 언제나 온전히 그들의 자녀이듯,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구히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그분의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은퇴할 때까지만 수행하는 직업이 아니라 철회할 수 없는, 선물받은 은총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실한 분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성사의 효력을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수용, 소명, 보호의 형태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호가 새겨지는 이 세 성사는 반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74항은 인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인호’는 성령께서 ‘속량의 날’(에페 4,30)을 위하여 우리에게 찍어 놓으신 표지이다. 과연 세례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다. 끝까지 인호를 간직한, 곧 자신이 받은 세례가 요구하는 것에 충실한 신자는,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세례 때에 고백한 그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의 완성인 지복 직관(至福直觀)을 바라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인호를 받은 사람이 성사를 통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며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환영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오한빛.수산나 가정을 위하여	정혜엘리사벳회	생	김평옥모니카와 Joel과 Shawn의 영육간 건강	구비아
생	김예빈.글라라의 건강 회복	이나숙.테레사			

◎살아계신 분◎

간
장
종
지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알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당신이 함께 살아 있는 한 몸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해 눈물 흘리는 분인줄 잊고 있었습니다, 내 주님.

마종기 노렌조 · 시인,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	--	--

